한겨레 THE HANKYOREH

서울 24℃~32℃ 구름 많고 한때 비 인천 23℃~31℃ 구름 많고 한때 비 ▶지역별 날씨 10면

2010년 8월19일 목요일

6판 | 7001호 | www.hani.co.kr | 1988년 5월15일 창간 | 대표전화 1566-9595

정부, 멜라트 서울지점 '영업정지' 검토

〈이란계 은행〉

이란제재 실행안 '폐쇄' 대신 절충카드…외환거래법 위반 적용

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지점 폐쇄를 바라는 미국과 제재 자체에 반대하는 이란을 두루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양쪽 다 반발할 수 있다.

18일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지침'(이하 지급영수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영수지침은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과 미국 대통령령 13224호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멜라트 지점은 한은의 승인 없이 금융제재 대상자들과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10조 확인업무 위반)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15조 지급절차 위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멜라트 지점이 외국환업무에 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수출입금융에 특화돼 있는 멜라트 지점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점 폐쇄에 맞먹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멜라트 지점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은행법, 외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 등을 놓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 영업행위 등과 관련해 은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적발되지 않아 은행법상 지점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협법 역시 테러자금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란 제재의 배경인 핵이나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자금은 제재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법에서 멜라트 지점을 폐쇄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외환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혜정 안선희 기자 idun@hani.co.kr

'피디수첩 4대강편 불방' 비판 확산

MBC노조 제작거부 논의 "김재철 사장 한계 드러나"

시민단체·야당도 한목청 "국민 알권리 침해한 범죄"

17일 밤 방송 예정이었던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 사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엠비시 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개입으로 방송이 보류됐다'며 강경한 물리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엠비시 노조는 18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노조는 19일부터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문화방송 방송센터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출근하는 김재철 사장에게 직접 항의를 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파업과 제작거부 방안도 논의됐으나 사쪽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다음주에 방송돼야 한다는 입장을 사쪽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만약 사쪽이 거부한다면 피디수첩 다른 프로그램 방송을 거부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디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 보류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로 출근하자 문화방송노조 조합원들이 팻말을 든 채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조는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 특보를 통해 "엠비정권의 아킬레스건인 '4대강'이 결국 김재철 사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엠비시가 자랑스럽게 지켜오던 공정방송 조항과 국장책임제가 휴짓조각처럼 구겨졌다"고 성토했다.

문화방송 이사회는 전날 제작진이 사전 시사를 거부하자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문화방송 경영진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피디수첩 결방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범죄"라며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의 결방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반대 범시민연대'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디수첩 방송을 막으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방송 보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필 고나무 기자 fermata@hani.co.kr

▶ 영상은 hanitv.com

조현오·이재훈 여당도 포기했나 5

종편 특혜 그대로…부작용 나몰라라 4

이스라엘, 이란 원전 공습 가능성 20

esc 육해공 레저 강호들, 춘천서 승부를 가르다

hani.co.kr hani 스페셜 | VOL.4 'GMO 논쟁' 아줌마들의 수다에 오르다

청소년이 꼽은 '한·중·일 관계개선 위한 조건'

"역사교육"

"경제협력"

"교류확대"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7일 미나미보소시 다이부사미사키 자연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

미나미보소/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술국치 100년 새로운 100년

합동 역사캠프 참가자 조사 "캠프 통해 선입견 깨져" 많아

경남 남해에서 온 이인희(16)군은 이번이 두번째 일본행이다. 중3이던 지난해 축구팀의 일원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축구장과 호텔을 전전한 게 전부였다. 당연히 또래의 일본 또는 중국인 친구도 없고, 이들과 진지하게 만나 얘기해본 적도 없다. ▶관련기사 8·9면

이군의 머릿속에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짜증나는 나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무서운 나라'였다. 이군은 "언론을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에 일본, 중국 친구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많이 깨졌다"고 말했다.

한·중·일 청소년들의 역사교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겨레〉는 지난 4~9일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의 한국 쪽 실무를 맡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함께, 이번 캠프에 참여한 만 13~20살의 청소년 99명(한국 36명, 일본 24명, 중국 39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식조사를 벌였다. 통계학적 분석을 하기엔 표본 수가 너무 적긴 하지만, 세나라 청소년들의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류의 효과를 판단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세나라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에 대해 '매우 친근하다'(1점)부터 '매우 친근하지 않다'(5점)까지 5개의 보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평균값을 산정해봤다.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에 느끼는 친근감은 2.74점으로 '친근하다'(2점)와 '보통이다'(3점) 사이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2.91점이었다.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2.0점으로 중국(2.78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국 청소년들의 상대국 인식은 한국 2.41점, 일본 2.66점이었다.

'친근하다'고 답한 청소년 대부분은 '문화적으로 익숙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학생들은 24명 가운데 18명이 '한국이 친근하다'고 답했다. 주관식으로 이유를 물으니 대부분의 학생(60%)이 '한국의 음악·영화·드라마 등을 알거나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7일 밤 열린 '한국의 밤' 행사 때는 한국 여학생들보다 일본 여고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녀시대의 '지'와 '소원을 말해봐' 등의 춤을 완벽히 따라해 눈길을 끌었다.

▶8면으로 이어짐

미나미보소/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군위안부·난징대학살…서로의 역사 너무 몰라"

경술국치 100년 새로운 100년

〈1부〉 역사가의 삶에 비친 뒤틀린 과거
〈2부〉 잊혀진 기억 아물지 않은 상처
〈3부〉 동아시아,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❶ 지자체가 나섰다 시민이 움직였다
❷ 유골 공동발굴로 맺어진 교류
❸ 동아시아 시민운동으로
✓❹ 공동 역사교육을 위한 실험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 현장

3국에서 모인 120명 아이들 "군위안부 일본서 안배우고 간토대지진 중국선 몰라요"

"일본 국기는 정말 쉬워."

일본 지바현에서 온 여고생 이치하라 나나코(16)양이 빨간 매직으로 일본 국기의 동그란 원을 그려가며 쿡쿡 웃었다. 한국의 강다영(17)양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태극기 4괘를 빠르게 칠해가고 있는 데 견줘, 중국 난징사범대학교 부속 고급중학교 2학년생 첸위페이군은 "20분 남았다"는 교사의 재촉에도 여유만만한 표정이다. "중국 오성홍기에 들어가는 별은 한쪽 귀퉁이의 각도가 36도거든요. 지금 재는 중이에요."

지난 8일 오후 1시, 일본 지바현 미나미보소시의 '소년자연의 집'. 이곳에 모인 9회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참가자 120여명은 평화선언문 발표 행사를 위해 커다란 도화지 위에 글과 그림을 섞어가며 선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치하라 등 19명으로 구성된 디(D)반 학생들은 도화지 위에 3개국 국기를 동그랗게 배치한 뒤 그 위에 굵은 펜으로 토론 끝에 결정한 선언문을 적어나갈 예정이다.

만 13살부터 20살까지 비슷한 또래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5일 자기소개로 탐색전을 벌이더니, 6일 저녁 7시30분부터 진행된 둘째날부터 '평화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중국의 천홍진양은 "평화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한·중·일 3개국어로 벌떼처럼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국 학생이 발언하면, 그 말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일일이 통역하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가며 토론은 한발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거 아닐까? 서로가 같이 발전하려는 연대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한국·이재웅) "인간에게는 모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기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사이의 실력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해."(중국·첸)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똑같은 실력을 가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일본·가가와 미요코) "얘기가 딱딱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실천을 해보자. 이를테면 주변에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한국·김규현)

올해 캠프는 도쿄 동쪽에 자리잡은 지바현에서 진행돼 1923년 9월 발생한 간토(관동)대지진 이후 벌어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문제,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현장학습이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난징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난징대학살도 자주 주제로 떠올랐다. 토론 과정에서 서로가 그동안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토 가즈노리(17)군은 "난징대학살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아이들은 대부분 잘 모르지만, 한국과 중국 아이들은 잘 알고 있어서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런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친해지는 것은 힘들죠." 가가와 미요코(17)양도 "간토대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배우지 않아 잘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외고 2학년 이재웅(17)군도 "한국 할머니들만 위안부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첸도 "난징에서는 난징대학살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게 자주 듣지만 간토대지진은 중국 교과서에는 전혀 실려 있지 않아 나를 비롯해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했다.

"자 이제 5분. 정리하세요."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최인영(26) 부장이 평화선언문 주변에 둘러선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첸의 만만디를 보다 못한 쑤루이린양 등 중국 여학생들이 펜을 빼앗아 재빨리 중국 국기의 다섯개의 노란 별을 그려넣고, 바탕의 빨간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국기 그리기가 끝나자 일본의 가가와양이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자국만의 관점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갖는다", 중국 학생들은 "동아시아 3국은 언제나 함께 진보해야 한다"고 써넣었다. 한국에서는 왼손잡이인 막내 박혜수(14)양이 삐뚤거리는 글씨로 "우리는 동아시아 3국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박양은 "우리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면 평화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잘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못사는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선언문' 공동작업 하며 이해하고 연대하는 힘 키워 "경쟁만 하지말고 함께 진보"

평화선언문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이를 배경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남자 '무궁화 그리기'가 전문이라는 장유나(14)양이 옆반에서 불려왔다. 선언문의 한 귀퉁이에 꽃잎이 다섯개인 분홍색 꽃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너희들 무궁화꽃을 들어본 적이 있니?" 지난 사흘 동안 디반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교토 출신의 전직 역사교사 노무라 지요코가 일본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어떤 꽃인데요?"(가가와)

"저렇게 예쁘고 상냥한 꽃이란다."

"네, 그렇군요." 꽃보다 더 예쁜 얼굴을 한 아이들이 서로 마주 보며 까르르 웃었다.

미나미보소/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8일 동북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담은 평화선언 포스터를 조별로 만들고 있다. 미나미보소/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중·일 관계개선 위한 조건

▶1면에서 이어짐

이에 견줘 중국이 친밀하다고 답한 일본 청소년은 8명뿐이었다. '한국에 견줘 교류가 적다', '문화를 잘 모른다' 등으로, 한국에 친밀함을 느낀 것과 반대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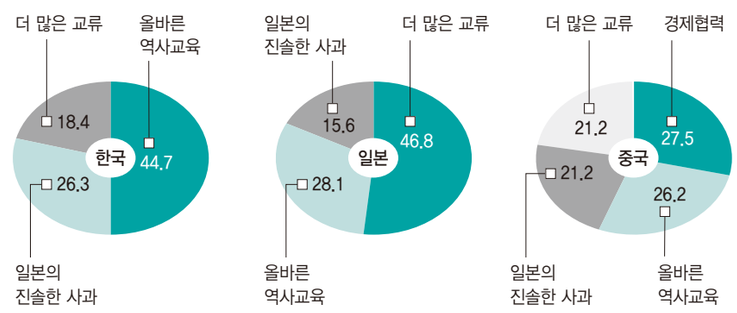
그러나 캠프를 통해 상대국 또래들을 만난 뒤에는 '이웃나라를 더 잘 알게 됐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학생들이 '매우 잘 알게 됐다'(1점)와 '잘 알게 됐다'(2점) 사이인 1.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한국(1.72점), 중국(1.92점) 차례였다. '주변 친구들에게 참가를 권하겠다'는 응답도 중국(1.51점), 한국(1.62점), 일본(1.69점) 등으로 비슷했다.

각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미묘한 응답도 있었다. 한국 학생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친해지려면 해야 할 일'로 '올바른 역사교육'(44.7%) '일본의 진솔한 사과'(26.3%) '더 많은 교류'(18.4%)를 꼽은 데 견줘, 일본은 '더 많은 교류'(46.8%) '역사교육'(28.1%) '일본의 사과'(15.6%)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답변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경제협력'(27.5%)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역사교육'(26.2%) '일본의 사과'(21.2%) '더 많은 교류'(21.2%) 순이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성균관대 연구교수)은 "사람이 사람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은 그 나라와 잦은 교류를 하고 문화적으로 익숙하다고 느낄 때"라며 "3개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진정한 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3개국이 앞으로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위: %)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문 대상: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참가학생 99명(한국 36명, 일본 24명, 중국 39명)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508-중-6962호 광고

난치성피부병, 이젠 관리가 아니라 치료다!

김재춘 원장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피레토한의원 강저춘 원장은 모든 생체포는 물리학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난치성 피부병 또한 인체 열에너지학적 측면에서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몸속온도 낮아질 때 가려움증 반복, 각종 피부병으로 발전

인체의 체온조절중추인 시상하부에서는 심부온도가 상승할 때 피부모공을 열어 땀의 분비를 많게 하여 땀의 기화열에 의해 피부온도를 낮추고,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피부모공을 닫아 피부온도를 높여 몸속온도를 보존하려 한다. 즉 체온 37℃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 음식 등으로 몸속온도가 낮아지면 몸속온도 보존을 위해 피부온도를 높이려 모공을 닫게 된다. 몸속온도의 저하가 장기화되면 피부모공 또한 장기적으로 닫혀 있게 된다. 이때 음식물을 섭취하면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열에너지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 내 몸은 수증기가 빠지지 않는 전기밥솥과 같은 상태로 된다.

피부모공이 닫히면 인체 냉각장치에 이상이 생겨 심장에서 먼 곳부터 모공이 닫히기 시작해 열에너지가 얼굴, 목, 등 부위로 쏠리게 되어 열감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고 여드름, 지루성피부염, 안면홍조, 두피질환 등의 피부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피부모공이 닫힌 정도에 따라 피부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몸속온도가 낮아지면 피부모공은 더욱더 닫혀 몸의 열에너지 발출에 문제가 발생, 피부모공을 강제적으로 열게 되고 이때 피부에 마찰열을 이용한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열려진 피부모공을 통해 열에너지가 빠져 나가면 시원한 감은 들지만 열려진 모공으로 열에너지가 쏠려 굵은 부위의 피부발적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아토피, 건선, 습진, 두드러기 등의 난치성 피부병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피부온도를 낮추어 피부발적과 가려움증을 줄이려고 몸속온도까지 낮아지면 모공은 더욱더 닫히게 되어 나중엔 더 강하게 열에너지를 방출하려고 굵게 된다. 즉 가려움증이 반복되어 피부병이 낫질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몸속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속도는 떨어지고 혈액의 점성은 높아져 피부세포의 면역력이 저하됨과 아울러 수분공급의 감소로 피부건조, 균열, 태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유일한 치료방법은 저하된 몸속온도를 정상화하여 피부온도를 낮추어야 피부모공이 열리게 되고 이때에 열려진 모공을 통해서 열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방출되면 가려움증과 피부발적, 피부건조, 균열, 태선 등이 없어지게 되어 여러 난치성 피부병이 낫게 된다는 주장이다.

피레토한의원 4대치료법으로 몸속은 따뜻하게, 피부는 차갑게 해 피부병 치료

피레토한의원은 아토피, 건선 및 난치성 피부병의 치료를 위해 진맥, 체질검사, 기초체온, 체지방검사, 체열진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사를 먼저 시행한다. 그후 약침, 운동, 식이, 생활 등 피레토한의원의 4대 치료법에 대한 감의식 진료를 한다. 약침요법으로는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온도는 낮추는 효능이 있는 탕약을 처방한다. 아울러 연고제나 액체형 외용제도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연고는 가렵고 피부건조가 심할 때, 액체형 외용제는 긁어서 진물이 나는 경우나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러한 치료로 저하된 몸속온도가 정상이 되면 수축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이 피부세포에 충분히 공급된다. 이로 인해 피부세포는 자생력과 면역력을 가지게 되어 정상적인 피부세포의 기능을 다하게 된다. 그 결과 높아졌던 피부온도가 낮아지면서 열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방출되어 가려움증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낮아졌던 몸속온도가 따뜻해지면 각질화된 죽은 세포의 탈락이 촉진되고 피부재생은 빨라진다. 이렇게 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피부병을 치료해야 치료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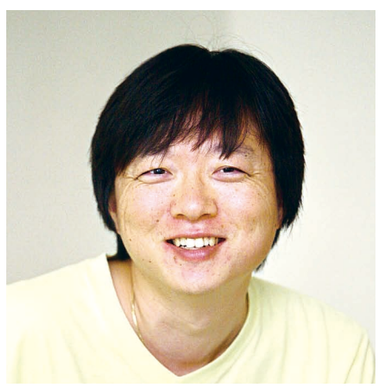
피부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피부질환

가려움증, 피부발적, 아토피, 건선, 여드름, 주부습진, 화폐상 습진, 지루성피부염, 접촉성피부염, 두드러기, 안면홍조증, 모낭염, 모공각화증, 두피질환, 조갑질환, 피부태선증, 염증후저색소침착증, 어린선, 한포진, 천포창,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베체트병, 피부묘기증 등

피레토한의원 www.pyreto.com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 동보빌딩 2층 문의 02-458-2272

3국 지도교사들 "공동 역사교육으로 새 미래 열어야"

강연수 (한국)



경기 성남 복정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사〉를 가르치는 강연수(34) 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은 아이들에게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모든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구성돼 있어요. 쉽게 말해 일본과의 교류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미개한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중·일 교류사 균형잡힌 교육을"

한국은 '선' 다른나라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피해야

강 교사는 "그러다 보면 주변국들과 교류해온 역사의 전모를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사〉 과목이 있지만 '서양 중심, 중국 부중심, 그외의 나라'라는 틀로 짜여 있어 한·중·일 3개국의 교류사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은 선, 다른 나라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는 일본의 잘못을 따끔히 지적하면서도 '왜 할머니들이 지난 몇십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침묵을 강요한 것은 한국의 가부장적 질서 때문은 아닌가' 등을 함께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낯설게 거리두기'다.

거리두기의 가장 좋은 예는 현재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오타니 컬렉션'이다. 이 유물은 위구르족들이 사는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문화재지만, 20세기 초 일본 니시혼간(서본원)사의 주지 오타니가 이 지역의 동굴을 답사하면서 벽에 그려진 불화들을 약탈해 왔다. 이때 오타니가 모은 약탈품 일부가 조선총독부에 기증되면서 해방 후 우리나라에 남게 됐다.

"아이들이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듣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의 약탈 문화재도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말하면 당황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깊어지고 균형잡힌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교사는 "역사를 '충분히'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다. 자세히 가르치면 수능을 위해 진도를 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우메자와 가즈오 (일본)

일본 지바여자고등학교에서 일본사를 가르치는 우메자와 가즈오(52) 교사는 "국가가 나서서 다름과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교육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점"을 일본 역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에 교과서 편찬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쳐 '난징대학살' '종군위안부' '오키나와 주민들의 집단자결' 등의 문제에서 국가 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교과서 기술을 유도하다 일본 시민사회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우메자와 교사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교사들도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일 정부, 역사교육 한 방향 몰아가"

종군위안부 등 국가책임 부정…교과서 채택 시민 관심 중요

그러나 일부 우익 교과서를 제외한다면,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주변국들의 역사를 대놓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예전과 달리 지난 잘못들을 꽤 솔직히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메자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고교일본사 B〉(짓쿄출판)의 기술을 보니,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병합조약에 대해서 (일본이) '강요했다' 또는 '밀어붙였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학생들이 가해의 역사에 무지한 이유는 뭘까? 우메자와 교사는 "아무래도 가해의 역사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적혀 있어도 선생도 아이들도 그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견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이 받은 피해니까 교사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도 공감하게 되는 거죠."

우메자와 교사는 "내년에 일본의 중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지역별 교육위원회다. "교육위원회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만 보수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보수적인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위안웨이 (중국)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난징대학살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중국의 난징사범대학교 부속 중학교(중국은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중학교라 부름)의 역사교사 루위안웨이(29)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묻는 질문에 한동안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역지사지 통해 정의감 길러줘야"

한국 교과서, 난징학살 잘 안다뤄…관점 공유하려는 노력을

루 교사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정의감과 인문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의 비중은 매우 낮다. 중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세계역사〉(인민교육출판사)의 한국 관련 서술은 '고대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쪽글 하나가 유일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역사를 중심에 놓고 가르쳐왔습니다. 또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은 지난 세기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술이 한국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중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됐으니 한국에 대한 기술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2005년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이 함께 펴낸 〈미래를 여는 역사〉를 통해 일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은 3국의 학자들이 같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3국이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동아시아 세 나라는 지난 시간 동안 서로 교류하고 갈등해왔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배우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아이들에게 난징대학살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한국처럼 일본에게서 많은 피해를 받았잖아요."

미나미보소/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중·일 학생들이 지난 5일 일본 지바현 다테야마시 '가니타 부인의 마을' 교회 지하에 마련된 시로타 스즈코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시로타 스즈코는 일본에서 자신이 종군위안부였음을 처음 공개한 여성이다. 다테야마/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중·일 공동집필 역사교재 보급률 확대가 최대의 과제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지난 수십년 동안 갖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한·중·일 세나라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공동 역사교육'의 중요성이었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국사학)는 "지난 전쟁과 식민지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공통된 역사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에 공감한 3개국은 공동 역사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지난 4일부터 엿새 동안 일본 지바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다. 2001년 이 캠프가 시작된 뒤 2005년에 세나라 학자들이 공동집필한 역사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가 나왔다. 이는 이후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의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2005년), 한·일 역사교사들이 직접 만든 〈마주보는 한일사〉(2006년),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현 동북아재단 이사장)의 시립대팀과 도쿄학예대학팀이 같이 만든 〈한일 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2007년) 편찬 등으로 확장돼 갔다.

그러나 예상보다 보급률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허미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사무국장은 "역사교재는 일반 교과과정 밖의 부교재이고, 고등학생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 널리 보급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식 역사 교과목으로 도입되는 〈동아시아사〉도 의미있는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조철수 동북아평화재단 협력팀장은 "동아시아에서는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자국사 중심의 국사와 달리 베트남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4개국의 관계사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단원이 짜였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중·일이라는 국민국가가 성립되기 전의 시대는 가급적 당시의 왕조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교학사·천재교육 두 출판사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중이다. 〈끝〉 길윤형 기자

협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천안함의 진실에 관한 단 한권의 책!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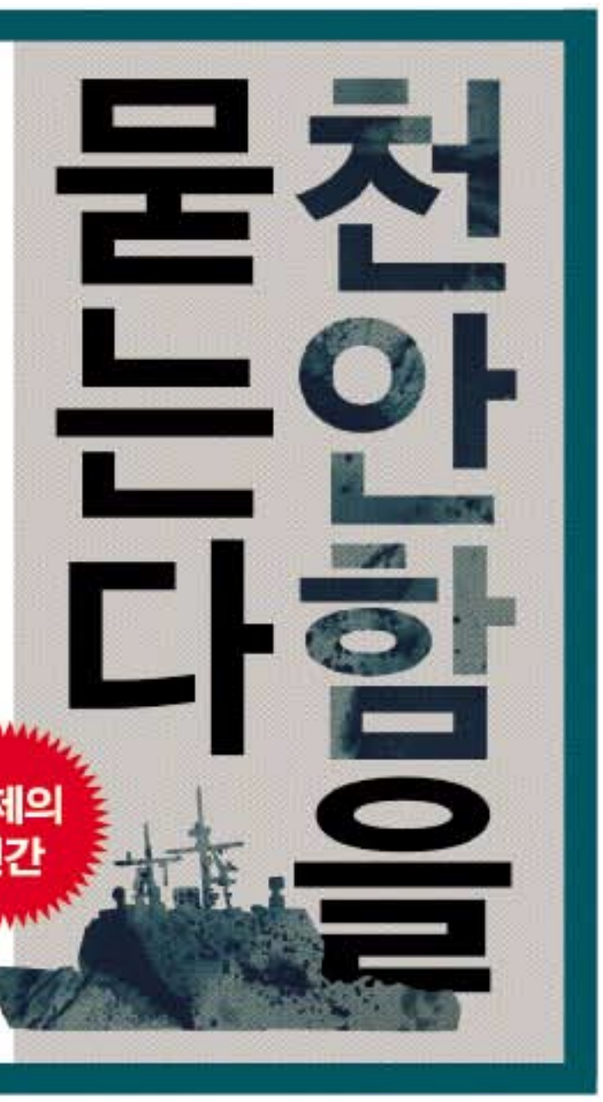
김태호 권혁철 김대호 김연철 김종대 박선원 서재정 신상철 이승헌 이태호 정세현 정한곤 최문순 황준호 지음

풀리지 않는 의문, 증폭되는 의혹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결정적 의문, 버블제트와 물기둥 논란, 반대방향으로 휘어진 스크루, 잘못된 어뢰 설계도, 군의 정보 통제와 선별공개, 의혹의 감사원 감사결과, 천안함사건의 출구전략 … 120여일간 숨막히게 펼쳐진 천안함 미스터리를 한권에 집대성하다.

사건 뒤에 감춰지고 숨겨져 미처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때론 그 뒷이야기들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천안함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YES24 블로거 maeno243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이들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 산만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숱한 주장들을 비중있는 것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겨레



창비 031-955-3333 Changbi Publishers